70年代 文化界의提言

畫壇

外國影響 反省단계

政治·社會的 支援 流派意識 脫皮를

南寃

國際畫壇의 動向을 구태여 年代的으로 본다면 五〇年代는 抽象회화와 全盛時代라고 볼수있었고 六〇年代는 그 고비가 수그러져서 이것을 보대도록서 많은 이슬이 범람한 年代였다고 말해 무방할것이다。六〇年代는 포프아트, 누보 레알리즘, 누벨 피규라숑, 오프아트, 키네틱, 팩트닐, 팩크놀로지, 인바이런멘탈아트, 뮤지엄아트, 공기예술(에어멘탈한것)등 과거의 어느 時代에도 볼수없었고 未來에도 아마 보기어려운 이름밑의 年代였었다。

우리 美術계는 이런 國際화단의 움직임과 우리나라 現實과의 관계가 있었는가。「유럽」이나 미국에서는 五〇年代에 至盛이었던 抽象美術이 우리나라에서는 六〇年代에 들어와서 겨우 우리 나름의 全盛期를 맞이한 셈이다。그동안 우리가 빠리 비에날레」를 위시해서 「상파울루」, 東京 「비에날레」 등 國際展에 참가한 作品들은 모두 추상계열의 作品들이었던것으로도 짐작할수있다。國內에서도 많은 展示會가 있었는데 역시 抽象계열의 作家들이 의욕的인것을 보여주었다。(이것은 一九六八年末까지 내가 본것을 말한다)。

國展 第二部에서는 非具象부문을 신설하기까지에 이르렀으며 그 保守的인 東洋畫 부문에서도 抽象作家에게 수천작가 實을준 사실도 부인할수없다。이제는 東洋畫니 西洋畫니 구별할 필요조차없다。앞으로는 東洋사람이 그린것은 東洋畫고 韓國사람이 그린것은 韓國것이라야한다。다만 東洋畫의 在來의 材料와 西洋에서 온 材料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젊은작가들은 저축에서 벗사람들은 새로운 경향에 쏠려서 그 중에서 몇사람은 새로운 방법을 주장하고있는 모 술을 우리나라 소승한 사람들 술가 그 의논이야말로 우리의 獨自的인것을 만들어낼 수있는것이 일단논문이 될 수있는것이 아닐까。科學처럼 서로 서로 시험관을 통해 서 처음에 독적한 연구 대상과는 다는 더욱 다른 것을 의미하는 있다。작가가 작업에 있어 작가가 시험관을 통해 서 맹렬히 일하고있는 것과 경이었었는가。이런 사건적인 우리가 가져오는 결과는 우리의 主體性을 부르짖을 이유가 없었다。마치 그 결과는 우리의 현대도시가 급속도로 현대화한 결과 人間이 소외당하고 상수되는 중요한 조건은 무시당하고 外觀的인 形態만이 강요되는것과도 같았다。우리 미술계도 어렵수 없는 사실이었다。

전과 같이 작업하게만 할지라도 앞날의 발전을 위해서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 원인은 미술가들에게만 있었을까。그러나 노력이 조차 없었다。마치 그 결과는 우리의 主體性을 부르짖을 이유가